

나눔과 연대의 광주, 코로나 극복 온정 붓물

광주은행 마스크 3만개

보문복지재단 1억원

시민 기부 행렬도 줄이어

광주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눔과 연대' 활동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마스크 3만개를 기부했고, 시민들을 중심으로는 소규모 기부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광주은행과 보문복지재단, 한국예총 광주시연합회, 미라클의원 등이 기부금품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광주은행은 마스크 3만개를 전달했으며, 보문복지재단은 1억원, 한국예총 광주시연합회는 1000만원, 미라클의원은 1000만원을 각각 기부했다.

전달받은 기부금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역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품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은행의 연이은 기부활동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되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달 28일엔 전남도에 마스크 3만개를 전달했으며, 목포·순천·여수·나주시 등에도 각각 1000만원씩을 기부했다고 한다.

광주은행은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6일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송중욱 광주은행장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마스크 3만개를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상원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용섭 광주시장, 송중욱 광주은행장.

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을 돕기 위해 대구은행측에 마스크 1만개를 전달하는 등 지역을 넘어선 나눔 정신도 실천하고 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지역민의 아픔을 보듬고 지역에 담긴 위기를 이겨나가는 데, 앞장서는 광주은행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코로나19 극복에 써달라며 광주시에 1억원을 전달한 정영현 보문복지재단 이사장은 "정형래 설립자의 '가짐보다는 쓰임이 더 중요하고, 더함보다 나눔이 더 중요하다'는 유지에 따라 코로나19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 위해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원식 한국예총 광주시연합회장은 "성금이 시민들의 마스크 구입과 어려운 현실에 처한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미라클의원 박소정 원장은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응원을 보내기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분들

의 마음을 다독여 주는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피부와, 성형외과 등을 전문으로 하는 미라클의원은 2018년 전남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문신·홍터 제거 시술 지원을 하는 등 평소에도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하고 있다.

광주시민들의 작지만 소중한 마음이 담긴 소액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중심으로 광주시민들의 기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익명의 기부활동도 활발하다.

지난 5일엔 광산구 우산동 행정복지센터에 한 남성이 찾아와 방역 마스크 13개와 50만원이 담긴 종이봉투를 전달하는가 하면, 지난 4일엔 한 시민이 첨단2동 행정복지센터에 24만2620원어치 동전 꾸러미 등을 건넨 뒤 사라졌다. 광산구는 시민들이 전달한 각종 기부금품을 소외계층을 돕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3·1절에 광주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에 병상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 각계각층에서 보낸 기부금품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시기일수록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이 빛을 발하고 있다"며 "앞장서서 나눔과 연대를 실천해 주신 지역사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해빙기 안전취약시설 특별점검

4월 3일까지 급경사지 등 205곳

광주시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일부터 4월 3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해빙기는 땅속 수분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면서 절개지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이번 점검은 시와 자치구, 시 안전관리자문단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급경사지 159곳과 아파트·건축물 등 46개 건설현장 중 공정을 50% 미만인 곳과 위험요인이 많은 옹벽, 석축, 절개지 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대규모 절개지, 지하 터파기 등 해빙기에 취약한 굴착공사, 추락 가능성이 높은 장소의 작업, 타워크레인 작업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발생한 서구 마루동

아파트 진입로 공사 현장 근로자 매몰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인 굴착 비탈면 적정 기울기 준수 여부, 흙막이 등 가시설물 설치 상태, 공사장 주변 축대 등 인접 구조물 보호조치의 적정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안전점검에서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배광준 광주시 재난예방과장은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시민께서도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하면 국민안전신문고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엔 해빙기 급경사지 158곳, 재난취약시설 53곳을 점검해 적합 94곳, 부적합 117곳 250건을 발견·개선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온라인상담으로 대체

2600여명 대상 9~13일 상담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연기한 제7기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 '드림 만남의 날'을 온라인상담과 화상면접으로 대체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까지 참가신청을 한 2600여명은 9일부터 13일까지 사업장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상담을 할 수 있다.

16일부터 20일까지는 공공기관, 공익활동, 기업,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청년창업기업 등 6개 유형별로 지정된 일정에 맞춰 화상면접에 참여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드림 공식사이트(gj3dreams.modoo.a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매칭 결과는 27일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은 청년의 자기 미취업 상태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정

착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디딤돌 사업이다.

시는 7기 운영을 위해 지난 1월 공공기관, 공익활동, 기업,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청년창업기업 등 6개 유형으로 나눠 사업장을 공개모집하고, 현장 심사를 거쳐 350여 개 사업장을 발굴한 바 있다.

강영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 직무대리는 "제7기 사업은 코로나19 확산과 8기 운영 일정을 감안해 일경험 기간을 5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을 단축 운영하기로 했다"며 "코로나 위기로 어려운 지역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일일 근무시간을 5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연장해 당초 지급 예정 급여와 동일한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22일까지 시내버스 감차운행 추가 연장

초·중·고 개학 연기 따라

광주시는 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 개학이 2주일 추가 연기됨에 따라 이날까지로 예정했던 겨울방학 시내버스 감차운행을 22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겨울방학 기간 이용객 감소 추이를 고려해 지난 1월 1일부터 평일기준 101개 노선에 기존 999대에서 121대를 감차한 878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시는 초·중·고 개학 추가 연기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객 감소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행 감차운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시민 혼란이 없도록 광주시버스 운행정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감차운행 연장을 안내하고 있으며, 감차기간에 시내버스 노선별 운행시간표는 버스운행정보 홈페이지 내 노선검색 또는 운행시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에너지 절약 '탄소포인트제' 참여하세요

전기·가스 절약 인센티브

광주시 10억 여원 지급

광주시는 "시민이 전기·수도·가스 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일정량 이상 줄일 경우 포인트로 환산해 지급하는 제도다.

6개월 최대 2만5000포인트, 연 최대 5만포인트까지 발생 가능하며, 지급받은 포인트는 현금처럼 쓸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지난해까진 가정부문, 단지부문, 시설부문 등으로 구분해 운영됐으며, 올해는 자동차부문까지 확대한다. 광주시는 환경부 세부지침이 확정되면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ar.cpoint.or.kr)를 통해 참여 희망자를 선착순 모집할 계획이다.

시는 또 올해 감축실적에 따라 가정 및 단지부문 인센티브 10억원, 시설부

문 5400만원, 자동차부문 900만원 등 총 10억63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전기·수도·가스 고객번호를 알고 인터넷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 또는 가까운 자치구,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가입 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변경사항이 생기면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나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개인 정보를 바꿔야 정상적인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61만7300여 세대 중 50%가 넘는 35만3600여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했으며, 51만7200여 세대에 33억1600여 만원을 지급했다. 가입률이 50% 이상인 자치단체는 광주시가 유일하다.

특히 지난해에는 가입세대 중 절반에 가까운 17만3100여 세대가 5% 이상 절감해 총 9억6000여 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는 온실가스 9만5544t 감축효과로 30년 소나무 1471만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같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코로나19 예방, 스마트도서관 이용하세요"



서구, 대출·반납 24시간 운영

광주시 서구는 8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임시 휴관에 들어간 도서관을 대신해 스마트공공도서관을 이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역 4번 출구 앞에 설치된 스마트도서관(사전)은 무인으로 연중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도서 대출부터 반납까지 가능한 스마트 도서관은 400여 권의 도서를 보유 중이며 1인당 2

권까지 대출할 수 있다.

또 서구 구립도서관(상록도서관·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서구공공도서관)에 소장 중인 책을 스마트도서관에서 받아볼 수도 있다. 도서관별로 최대 5권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5일이다.

서구는 스마트도서관 인팍과 모든 도서를 매일 소독하고 있으며, 스마트도서관 방문하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 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내 전자도서 및 오디오북도 운영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